



2007.4.12

1

2049

2024.8.21

KIA 양현종이 지난 2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3회 운동회를 상대로 이날 경기 3번째이자 통산 2049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레전드' 송진우를 넘어 KBO리그 최다 탈삼진 새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양현종, KBO리그 최다 탈삼진 2049개 신기록

2007년 입단 후 철저한 자기 관리·타협 없이 달려와

"대기록 실감 안나...나는 진행형, 새로운 기록 쓸 것"



역사의 순간 '대투수' 양현종은 '타협 없던 노력'을 이야기했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은 지난 21일 챔피언스 시리즈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탈삼진' 기록을 연달아 만들었다. 1회 첫 타자 황성빈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은 양현종은 KBO리그 역대 3번째 10시즌 연속 100탈

삼진 기록을 작성했다. 2회에는 나승엽을 스탠딩 삼진으로 돌려세우면서 다시 한번 팬들의 환호성을 이끌었다. 이 탈삼진으로 양현종은 '레전드' 송진우의 개인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3회에는 양현종이 기록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섰다. 양현종은 2사 2루에서 운동회를 4구째 헛스윙 삼진으로 잡고, 통산 2049 탈삼진이라는 KBO리그 새 기록을 작성했다. 이날 4-4로 맞선 상황에서 5회를 끝으로 양현종의

등판이 마무리되면서 '10승'까지 동시에 만들지는 못 했지만, KIA 후배들은 이날 경기를 6-5 재역승으로 마무리하면서 선배의 대기록 달성을 축하했다. 살아있는 역사, 양현종은 묵묵하게 기록 소감을 밝혔다. 양현종은 "언젠가는 기록이 깨질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신경은 안 썼던 것 같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뜻깊은 기록으로 남겠지만 크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다"며 "(송진우를 넘었다는 것을) 지금은 아직 못 느끼겠다.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 정민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는 아마이만한 기록이고, 업적을 남기는 거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현역이고, 새로운 기록을 위해 달려가야 한다. 아직 나는 진행형이다"고 밝혔다. 대기록을 만든 것도 '묵묵함'이다. 노련함으로 상대를 요리하면서 탈삼진 새 기록 주인공이 됐고, '이날'의 대명사로도 통하는 양현

종. 리그 정상에 있지만 그의 노력은 후배들에게 뒤지지 않는다. 엄격한 자기관리와 노력으로 부상 없이 꾸준하게 마운드를 지키면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 러닝 훈련도 양현종은 게을리지 하지 않고 있다. 양현종은 "나만의 몸을 만드는 방식, 몸을 회복하는 방식 이게 거의 한 15년부터 계속 이어졌다. 물론 지금 새롭게 드라이브라인이나 여러 새로운 훈련이나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그걸 최대한 안 하려고 한다. 내 자신을 믿고 최대한 스스로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항상 모든 준비를 할 때마다 내 자신과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고, 꾸준히 하려고 했던 게 이 자리까지 꾸준히 던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꾸준함으로 이야기됐던 이강철 KT 감독이 그의 타협 없는 노력과 질주의 바탕이 됐다. 양현종은 "이강철 감독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선발투수로 안정이 안 됐을 때부터 주입식으로 강압적으로 많이 시키셨다.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물론 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감독님 영향으로 꾸준히 해와서 계속하고 있다"며 "항상 자기 기록을 다 깨라고 이야기하셨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키워 주셨던 분이요 가장 우려려 본 그런 선수였다"고 이강철 감독을 이야기했다. KBO리그에 역사를 남긴 날, 양현종은 170이닝을 향한 목표를 밝혔다. 양현종은 "다음 목표는 170이닝이다.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탈삼진 기록을 만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10년 연속 170이닝이라는 걸 세울 때는 나도 모르게 많이 벅할 것 같다"며 "올 시즌 끝까지, 야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기도 제가 넘어야 할 목표다. 170이닝 이상 달성하게 되면 스스로가 뿌듯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 울산 상대 4일만의 설욕전 나선다

코리아컵 준결승전 1차전 0-1 석패...25일 K리그1 28R 홈경기

광주FC가 울산HD를 상대로 4일 만의 설욕전을 벌인다. 광주는 25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울산과 K리그1 2024 2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설욕전' 무대이자 기싸움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다. 광주는 지난 21일 안방에서 울산과 코리아컵 준결승전 1차전 홈경기를 치렀다. 이 경기에서 광주는 아쉬운 실수와 함께 선제골을 내줬다. 골키퍼 노희동이 빌드업 과정에서 패스한 공을 울산 정우영이 태클로 끊어냈다. 이어 공을 잡은 아고와 원발 슈팅까지 연결하면서 광주 골망을 흔들었다. 광주는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루키' 문민서의 골로 동점을 이루는 것 같았지만, 공을 잡는 과정에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0-1

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광주는 오는 28일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울산과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2점 차이로 승리를 거둬야 결승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코리아컵 우승과 파이널A라는 목표를 동시에 쫓고 있는 광주에 25일 경기 승리가 절실하다. 공교롭게 리그 일정까지 울산과 3연전을 펼치게 된 광주는 코리아컵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체력을 비축했다. 체력을 비축한 '살림꾼' 정호연과 공격의 핵심 이희균, 가브리엘이 승점 사냥에 나선다. 아사시의 활약도 반갑다. 지난 강원 원정에서 페널티킥으로 2호골을 기록한 뒤 상대 자책골을 유도했던 아사시가 코리아컵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광주 공격에 무게감을 더했다. 4일 만의 복귀전을 치른 이민기도 분위기 반전을

위한 카드다. 이민기는 21일 코리아컵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7라운드 전북전 이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민기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격의 활로를 만드는 등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시즌 주전 측면 수비수로 광주의 최소실점을 이끌었던 이민기는 풀백 활용에 다양한 옵션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나흘 만에 장거리 원정에 나서는 울산을 맞아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여야 한다. 초반 체력 싸움 뒤 후반 뒷심 싸움을 위한 카드도 중요하다. 광주는 코리아컵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 이승우, 오후성 등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들도 울산의 빈틈을 노릴 예정이다. 코리아컵 1차전 아쉬운 패배 뒤 "300%를 쏟아부었다"며 설욕전을 예고한 광주 이철호 감독이 흡에서 울산전 리그 연승을 잇고, 2차전 원정에서 뒤집기 요소를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야구, 이번엔 일본 잡는다

WBC 호주·체코와 한 조...2026년 3월 5~10일 도쿄서

한국이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별리그에서 일본, 호주, 체코와 한 조로 묶였다. 미국프로야구(MLB) 사무국에 따르면 한국, 일본, 호주, 체코는 C조로 편성돼 2026년 3월 5~10일 일본 도쿄돔에서 경기를 치른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 푸에르토리코, 파나마, 캐나다가 A조, 미국, 멕시코, 이탈리아, 영국이 B조, 도미니카 공화국,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이스라엘이 D조로 각각 편성됐다. 내년 2~3월 치러지는 예선을 통과하는 4개국이 조마다 한 팀씩 배치될 예정이어서 조별로 총 5개 팀이 풀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가 8강에 진출한다. 8강전(3월 13~14일-이하 2026년)은 미국 휴스턴과 마이애미에서, 4강전(3월 15~16일)과 결승전(3월 17일)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WBC 1라운드에서 일본, 호주, 체코, 중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2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첫 경기 상대인 호주

를 반드시 잡아야 했으나,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7-8로 패배했다. 한국은 호주와 일본에 연달아 패한 뒤 체코와 중국을 잡고 B조에서 2승 2패를 거뒀으나 결국 3개 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번에도 한국은 일본과 호주, 체코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C조에 들어갈 나머지 한 자리는 예선 라운드 통과 국가가 차지한다. 경기 일정도 확정됐다. 한국은 3월 5일 1라운드 첫전에서 체코와 상대하고, 이를 뒤인 7일에는 일본과 만난다. 8일에는 예선 라운드 통과 국가와 대결하고, 1라운드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호주와 상대한다. 2023년 WBC와 마찬가지로, 2라운드 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경기는 호주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C조에서 2위 안에 올라간 팀은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로 이동해 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2013년 3회 대회부터 지난해 5회 대회까지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연합뉴스

돌아온 홍명보호 누가 승선할까

26일 국가대표 명단 발표...국내파 선발 규모 이목 집중

팬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 감독의 '첫 선택'은 어떤 선수들일까.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참여할 국가대표팀 명단을 발표한다. 홍 감독이 고른 선수들은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2경기를 치른다. 9월 5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 10일 오후 11시 오만의 수도 무스카트의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오만과 맞붙는다.

2014년 7월 사퇴한 홍 감독이 10여 년 만에 치르는 국가대표 사령탑 복귀 무대다. 홍 감독은 2013년 6월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대표팀 지휘봉을 쥐었으나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지도자 경력 중 최악의 시기를 보냈다. 당시 최종 명단에 2012 런던 올림픽 멤버 12명을 넣어 '의리 논란'이 불거졌고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쓸쓸하게 발길을 돌렸다. 2014년 7월 사퇴할 때까지 1년간 홍 감독은 5승 4무 10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홍 감독에게 이번 9월 A매치 기간은 '승률

26.3%'로 고정돼 있던 자신의 국가대표 사령탑 성적을 바꿀 기회다. 홍 감독은 지휘봉을 쥐기 전 후 유럽으로 가 손흥민(토트넘), 이재성(마인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 국가대표팀 공격, 미드필더, 수비진의 주축 선수들과 직접 만났다. 대표팀의 핵심 전력이자 '골격'인 이들 유럽파 선수가 대거 선발될 경우 전망되는 가운데 홍 감독이 어떻게 국내파 선수진을 꾸릴지 주목된다.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 사령탑 가운데 K리그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다. K리그에서 최강까지 경쟁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년간 울산 HD를 이끌며 K리그1에서 두 차례 우승했다. /연합뉴스



'올림픽 양궁 금' 남수현, 전남전 시축

파리올림픽 여자 양궁 금메달리스트 남수현(순천시청)이 전남드래곤즈의 승리를 위해 광양을 찾는다. 남수현은 24일 오후 7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전남드래곤즈와 경남FC의 K리그 2 2024 28라운드 경기 시축자로 나선다. 남수현은 지난 7월 파리올림픽 양궁 여자단체전에서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과 중국을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우승

으로 한국 여자 대표팀은 1988년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금메달 10연패'라는 대기업을 달성했다. 남수현은 개인전에서는 임시현과 '집안싸움'을 벌인 끝에 은메달을 획득했다. 금메달리스트를 초청한 전남은 이번 홈경기기를 통해 연패 탈출에 나선다. 전남은 8월 11일 천안시FC, 18일 수원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